

대기업들 전기차 충전시장 선점경쟁 불붙었다

한화큐셀, 신규 브랜드 내놓고 가세
LS는 E1과 공동투자 신규 법인 설립
현대차, 롯데 등과 손잡고 협공 나서
GS에너지는 충전사 지엔텔 지분 인수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올해 1분기 기준 약 25만대로 전년(13만 4962대) 대비 약 85% 증가했다. 3월 말 기준 국내 전체 누적 차량(2500만대)의 약 1% 수준까지 확대됐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대기업들이 속속 전기차 충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현대차는 물론 GS와 롯데, LS그룹에 이어 한화(한화큐셀)까지 전기차 충전사업에 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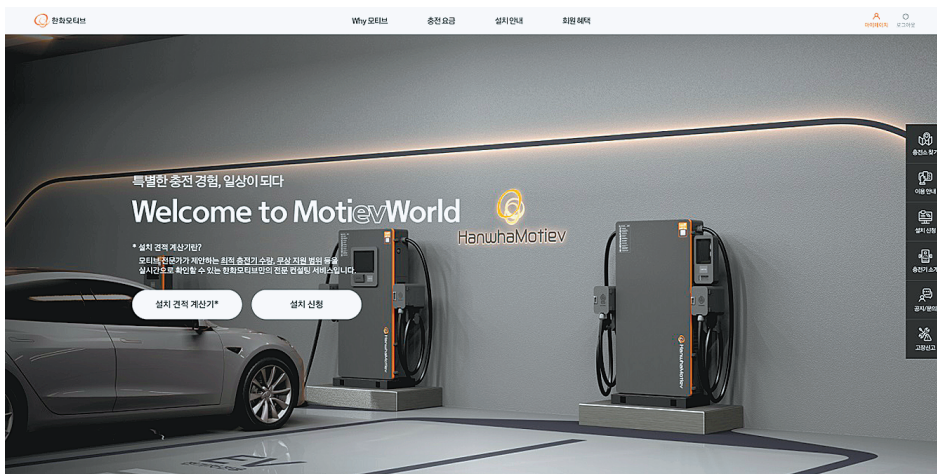
전기차 충전사업은 공동주택이나 업무용 빌딩 등에 충전소를 구축하고 전기차를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충전사업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조달 받아 전기차 충전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전력을 판매한다.

비교적 진입이 쉬운 데다, 전기차 충전소를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한화큐셀 새 브랜드 '한화모티브' 출시

한화큐셀은 '한화모티브(Hanwha Motiev)'라는 신규 브랜드를 출시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에 나섰다. 한화모티브는 한화 브랜드와 원동력이라는 뜻의 영단어 'Motiv'에 전기차(Electric Vehicle)의 영문 약자인 'EV'를 합쳐 만들어졌다.

한화모티브는 5월부터 한화 계열사 건물 주차장 및 상업용 빌딩 주차장을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사업 고객을 다각화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화큐셀의 전기차 충전 사업 브랜드 '한화모티브' 홈페이지 메인화면. 한화큐셀은 올해 급속충전기를 포함해 충전기 2000~3000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위 사진). 현대자동차그룹의 초고속 전기차 충전 브랜드 '이피드(E-pit)'.

한화모티브는 충전사업자로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공은 물론 초기 컨설팅, 투자, 사업 운영, 유지보수를 아우르는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을 시작하는 올해는 급속충전기를 포함해 충전기 2000~3000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고객은 전기차 충전소 개소에 관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소에 맞는 최적의 충전기 수량과 예상 전적 등을 안내 받을 수 있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한화모티브와 계약 시 일부 완속·급속충전기를 무상으로 설치 받을 수 있다.

충전소 이용객들을 위한 혜택도 마련

했다. 한화모티브 회원으로 가입하면 2022년 5월 급속충전기 요금 기준으로 환경부가 운영 중인 100kW급 급속충전기 이용요금보다 약 5~7%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또 충전 금액의 3%까지 적립이 가능한 업계 최고 수준의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4시간 콜센터를 통해 업계 유일의 실시간 대응 서비스도 실시한다.

한화모티브 관계자는 “장소제공자와 전기차 충전소 이용자 모두에게 신뢰할 만한 충전인프라 공급자가 필요할 시점”이라며 “한화모티브는 미래 모빌리티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접점이라 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수준 높은 솔루션을 제공하여 높은 고객 만족을 실현해 한화큐셀 기존 비즈니스와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들 충전 사업 속속 진출

LS그룹은 지난달 EV 충전 신규 법인인 LS E-Link(엘에스이링크)를 E1과 공동 투자해 설립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에 나섰다.

LS는 “앞으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단위 충전소의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기존 충전 기술뿐만 아니라, 전력계통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력 엔지니어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내 1위의 전력 솔루션과 가스 충전소 운영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롯데그룹, KB자산운용과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등 3사는 SPC를 통해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최대 200kW급)를 충전사업자 등에 임대하는 초고속 충전 인프라 사업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의 구매, 임대 및 사양 관리 등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전국 주요 도심에 초고속 충전기 5000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GS그룹은 GS에너지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펼치고 있다. GS에너지는 지난해 국내 충전사업자 지엔텔의 지분을 인수하고 충전서비스 합작사를 설립했다. GS주요소를 거점으로 하는 급속 충전 사업과 지엔텔의 완속충전 인프라를 합쳐 충전 사업을 지속 확대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현대중공업그룹 권오갑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HD현대 정기선 사장(세 번째) 등이 경기도 판교에 건설 중인 GRC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중공업그룹

“판교 R&D센터는 그룹 도약의 중심” 권오갑 회장, 공사 현장 찾아 강조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중공업그룹 권오갑 회장이 미래 그룹 기술경영의 중심 역할을 할 판교의 그룹 글로벌R&D센터(이하 GRC) 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요계열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권오갑 회장과 HD현대 정기선 사장,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부회장, 현대오일뱅크 강달호 부회장, 주영민 사장, 현대제뉴인 손동연 부회장, 조영철 사장, 현대건설기계 최철근 부사장, 현대일렉트릭 조석 사장, 현대에너지솔루션 박종훈 부사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GRC는 연면적 5만 3000평, 지상 20층, 지하 5층 규모로, 현재 87%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이곳에는 HD현대, 한국조선해양, 현대제뉴인, 현대오일뱅크 등 총 17개사가 입주할 예정이며 R&D·엔지니어링 인력 등 5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현대중공업그룹 미래 기술경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GRC는 그룹의 기술력을 한 곳으로 모아 시너지를 높이는 한편, 그룹의 제품 개발 관련 기초연구를 포함해 미래 신사업을 창출하는 신기술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GRC는 국내 최고의 에너지효율화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건물의 생애주기관리를 가능토록 했다. 또한 각 사의 협업이 용이하도록 공유 오피스 및 회의실을 설치하고, 직원들이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 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그룹의 역사와 제품, 일부 체험시설을 갖춘 홍보관, 디지털 라이브러리,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고객 라운지, 컨벤션 센터, 데이터 센터, 직원 편의를 위한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집 등을 갖추게 된다.

권 회장은 “GRC는 현대중공업그룹이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50년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이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근무환경을 조성해 직원들이 맘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성열 기자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포스코홀딩스,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소재 개발 전쟁음

대만 '프롤로지움'에 지분 투자
전고체 배터리 전문기업과 협력

포스코홀딩스가 차세대 이차전지의 핵심소재 개발을 위해 대만의 전고체 배터리 전문기업 '프롤로지움'과 협력한다.

포스코홀딩스는 프롤로지움에 지분 투자 및 핵심소재인 전고체 배터리 전용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 고체 전해질 공동개

발, 글로벌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6년에 설립된 프롤로지움은 2012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으며, 이를 스마트워치 등 소형 IT기기 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독일의 다임러그룹 등 주요 완성차업체와 함께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를 공동 개발 중이다. 기존의 이차전지는 전지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액체 성분의 전

해질을 통해 전기가 생성, 충전 되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전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하고, 분리막을 없앤 차세대 전지이다. 안전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소재사업추진단장 이경성 전무는 “프롤로지움과 협력을 통해 포스코그룹의 차세대 이차전지소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롤로지움 빈센트 양 회장은 “리튬, 니켈, 흑연 등의 이차전지소재 원료뿐만 아니라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포스코그룹은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이다. 이번 협력으로 전고체 배터리 생산 계획을 앞당기고, 필수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전고체 배터리에 적용 가능한 고용량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등 소재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고체전해질 생산 법인 포스코 JK솔리드솔루션을 설립해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원성열 기자

오늘의 날씨 18일(수)

서울	30/30	인천	30/30	춘천	30/30
	15 26		16 22		12 27
강릉	0/20	대전	0/0	전주	0/0
	19 29		15 28		15 28
광주	0/0	대구	0/0	부산	0/0
	14 28		14 30		17 25
창원	0/0	제주	0/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4 27		17 26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27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판공국장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